

KEY WORDS : Hypopharyngeal carcinoma · Surgery · Radiation therapy · Induction chemotherapy.

12

Treatment Results of Olfactory Neuroblastoma

BK Kim, M.D.,* HG Wu, M.D.
Department of Therapeutic Rad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Purpose : Because olfactory neuroblastoma is a rare disease, it is difficult for physician to practice with a consistent protocol. This study is performed to analyze the results of our experience with various treatment modalities for the patients with olfactory neuroblastoma.

Methods and Materials : Between June 1979 and April 1997, 20 patients were diagnosed olfactory neuroblastoma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They were 14 male and 6 female patients. The age of patients was 13 - 77 years (median : 24). In 15 out of 20 patients, the stages were Kadish stage C. They were treated with various combinations of surgery, radiotherapy and chemotherapy (surgery + postoperative RT + adjuvant chemotherapy(2), surgery + postoperative RT(6), chemotherapy + surgery

(1), surgery + chemotherapy(1), surgery only(2), chemotherapy + RT(3), RT + chemotherapy(1), RT alone(3), no treatment(1)). The period of follow-up was from 2 to 204 months (mean : 39.6).

Results : The overall 5- and 10-year survival rates are 20% and 10%, respectively. At the time of last follow-up, 4 patients were disease free ; 1 patient with surgery + RT + chemotherapy, 2 with surgery + RT, and surgery alone in 1 patient.

Conclusion : Majorities of the patients with olfactory neuroblastoma are diagnosed at advanced stage. Therefore multidisciplinary approach, including radical surgery, pre- or post-operative radiation therapy and chemotherapy, should be addressed at the initial time of diagnosis. And although limited by small number of the patients, this study suggests importance of local treatment modality, especially radical surgery in the treatment of ol-

factory neuroblastoma.

KEY WORDS : Olfactory neuroblastoma · Surgery · Radiation therapy · Chemotherapy.

13

비부비동에 발생한 선양낭포암종의 임상적 경과

김정훈* · 민양기 · 김광현
이철희 · 성명훈 · 이재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서 론 : 선양낭포암은 성장속도가 늦고, 국소재발을 자주하며, 원격전이가 호발하고, 긴 임상경과를 보이는 악성 종양이다. 이 연구는 비부비동에 발생한 선양낭포암을 다른 부위에 발생한 경우와 임상적 경과 및 치료 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 1979년부터 1997년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9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 및 방사선검사, 병리조직학적 검사결과를 재검토하였다. 96명의 환자중 26명에서 선양낭포암이 비부비동에 발생하였고, 남,여 환자는 각각 14명과 12명이었다. 연령은 20세부터 72세까지였고, 평균연령은 44세, 평균 추적관찰기간은 55.4 개월이었다. 비부비동 이외의 다른 소타액선과 주타액선에서 발생한 선양낭포암이 각각 41례와 29례였다. 3종류의 타액선군별로 국소재발율, 원격전이율, 질병특이생존율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생존분석의 통계처리는 Kaplan-Meyer법을 이용하였고, log-rank법으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 비부비동에 발생한 종양의 원발병소는 상악동이 20례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비강이 4례, 사골동이 2례였다. 26례중 17례에서 병리조직학적 재검사가 가능하였고, 그 유형은 cribriform, tubular, solid 아형이 각각 8, 6, 3례였다. 치료 방법은 크게 3가지였다. 수술과 방사선 병용 요법이 17례, 수술적 치료가 4례, 그리고 방사선치료 단독 혹은 항암치료 병용요법이 3례에서 행해졌다. 26례의 환자중 12례(44%)에서 재발하였고, 이 중 국소재발이 6례, 원격전이가 3례, 그리고 국소재발과 원격전이의 병발이 3례였다. 국소재발 및 질병특이생존율은 세 타액선군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비부비동의 소타액선이 다른 타액선에 비해서 유의하게 낮은 원격전이율을 보였다(p=0.009) 수술 혹은 방사선 단독치료와 수술과 방사선 병용요법의 치료

결과를 비교한 결과, 비부비동에서 발생한 선양낭포암이 병용요법을 시행하는 경우 유의하게 국소재발의 발생이 적었다($p=0.02$). 하지만 원격전이율 및 생존율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비부비동을 제외한 다른 소타액선군 및 주타액선군에서는 국소재발율, 원격전이율, 생존율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 : 비부비동에서 발생하는 선양낭포암은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와 비교한 결과 원격전이가 적게 발생하고, 수술과 방사선 병용요법을 시행하면 국소재발이 적게 발생하는 특징을 보였다. 비록 이것이 생존율을 증가시키지는 못했지만, 환자의 삶의 질과, 생존율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높인다는 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된다.

14

갑상선의 원발성 악성림프종

정응윤* · 장항석 · 양우익** · 박정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병리학교실**

배경 : 최근 갑상선의 원발성 악성림프종의 임상적 특징,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많은 보고가 있었으며, 특히, 하시모토 갑상선염과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기원의 악성림프종과의 발생적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목적 : 갑상선의 원발성 악성림프종에 대한 임상 및 병리학적 특징을 알고 적절한 진단 및 치료방법을 찾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82년부터 1999년 9월까지 경험한 갑상선의 원발성 악성림프종 17예를 대상으로 임상증상, 진단방법, 치료방법 및 결과를 알아보고 Ann Arbor Criteria에 따른 병기와 NCI working formulation에 따른 분류를 알아보았으며, MALT기원의 악성림프종의 특징 및 하시모토 갑상선염과의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결과 : 평균 연령은 56.8세(25~77세)이었으며, 남녀비는 2 : 15 이었다. 1년 내에 급격히 성장하는 무통성 종괴가 14예로 가장 많았고, 13예에서는 수술후 검체를 통해, 3예는 세침흡인생검으로, 1예는 절개생검으로 진단되었다. 병기는 I기가 6예, II기가 11예이었고, 모두 B cell 기원의 non-Hodgkin's lymphoma이었으며, MALT 기원의 림프종이 9예(53.3%)에서 확인되었다. Non-MALT 림프종 8예 중 7예가 diffuse large cell type, 1예가 diffuse mixed type이었고, MALT 림프종 9예 중 6예는 low-gr-

ade, 3예는 high-grade와 low-grade의 혼합형이었다. Non-MALT 림프종은 모두 II기이었고, MALT 림프종 9예 중 6예가 I기에 해당되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존재는 MALT 기원의 림프종은 9예를 포함한 10예에서 확인되었다. 치료가 시행된 15예 중 완전 관해를 보인 12예에서는 질병에 의한 사망은 없었으며, 단지 2예가 불완전 관해를 보여 각각 치료후 2개월, 16개월에 사망하였으며, 1예는 현재 치료 중이다.

결론 : 갑상선의 원발성 악성림프종은 비교적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효과가 양호하였으며, 특히 MALT 기원 림프종과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발생적 연관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법의 개발과 하시모토 갑상선염 환자의 세심한 경과관찰 및 세침흡인생검 혹은 절개생검등으로 조기에 진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15

수술중 근전도를 이용한 승모근의 신경 분포에 관한 연구

송병철* · 나선규 · 노영수 · 임현준 · 박동식**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교실 재활의학과학교실**

배경 : 두경부암종의 수술적 치료시 원발병소의 제거와 함께 시행되는 경부 청소술의 합병증 중 척수 부신경의 손상에 따른 견갑장애는 환자의 일상 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는 합병증이다. 따라서 이의 방지를 위해 척수 부신경을 보존하는 변형적 경부 청소술이 시행되어지고 있다. 최근의 일부 연구에서는 척수 부신경뿐만 아니라 경신경총도 승모근의 운동을 지배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목적 : 본 연구는 술 중 근전도를 시행해 척수부신경뿐만 아니라 경신경총의 승모근에 대한 신경분포에 대해 연구하고 신경분포의 일관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7년 7월부터 1999년 2월까지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두경부암으로 경부청소술을 시행받은 환자 24례를 대상으로 28부위에서 시행하였으며 bilateral ND이 4례, unilateral ND이 20례이었고, type별로는 경부곽청소술이 8부위, 변형적경부청소술이 20례이었다. 신경은 수술 중 완전노출로 확인하였고 승모근 지배여부는 술중 근전도를 통해 확인하였다.

결과 : 검사를 시행한 28례 모두에서 척수부신경이 승